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

전 세계 육지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이자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미지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우리가 문명이란 옷을 걸치기 전인 인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장엄한 대자연과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원시부족을 찾아 케냐와 탄자니아의 거친 사막과 광활한 초원을 넘나들며 펼쳐진 50일간의 대장정! 순수한 생명의 땅에서 태고적 인류원형에 가장 가까운 그들을 만났다.

글 · 주민정 EBS 호브릭 사진 · 최 욱

1부 초원의 유랑자, 가구루족

세계 소수종족 보호단체인 '저바이벌 인터네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분명세계'와 교류한 적 없는 '미접종 종족'이 전 세계에 100부족 정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만고레 정글에서 발견된 '가구루족'.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며 원시적인 생활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구루족은 현재 200여 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경이나 유목이 아닌 사냥과 수렵을 통해 생계를 이어온 가구루족은 원시인류가 그랬듯 나무를 파찰시켜 불씨를 얻고,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시적인 언어생활로 외부인과 소통할 수 없는 데다 야생동물이나 나무열매 등을 찾아 2, 30명씩 소그룹을 이뤄 유랑생활을 하는 탓에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초원을 달려 짐갈 이곳저곳을 헤맨 끝에 겨우 만난 가구루족.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새로 정착한 곳에 나뭇가지를 엮어 임시거처를 만든 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비오밭 나무에 오른다. 이프리카를 대표하는 타오람 나무는 가구루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식물. 커다란 나무동굴 속에 가득 들어찬 목청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 오랴만에 마을은 축재분위기에 섰는다. 사냥에서 남획을 잃은 19세의 젊은 여인이 남사아이를 출산한 것. 그러나 영양부족으로 엄마의 젖은 부족하고, 불도 없이 흙탕물을 대워 아이를 씻길 수밖에 없다. 새벽이면 아이의 목숨이 붉어 있는지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족들. 며칠 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먹을거리가 부족해지자 그들은 또다시 유랑의 길을 떠난다.



2부 케냐의 붉은 전사, 삼부루족

우리나라 인적의 6배, 3,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땅 케냐. 케냐의 북동부 건조지대에는 유목생활을 하며 전통 문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삼부루족이 있다. 가족의 피와 우유만 먹고, 진흙으로 만든 집에서 4~5세대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삼부루족.

취지진이 삼부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을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의 피를 마시는 붉은 전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삼부루족의 생활을 엿보게 된 것이다. 케냐의 소수민족들은 일반적으로 소피를 마시는데 이들은 낙타피를 마신다. 피의 양도 많고, 맛도 달라서 낙타피를 마시게 됐다고 한다.

